

농어촌공담양지사, 광주호 ‘쓰담쓰담’ 환경 캠페인

추석·APEC 맞이 부유물 수거

담양=정승균 기자

2025년 09월 29일(월) 18:08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최근 광주호에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상반기 담양호 캠페인에 이어 하반기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진됐다.

김건경 담양지사장을 비롯해 서원신 농지은행관리부장과 직원 20여 명은 광주호 제방 일대에 밀려온 부유물을 수거하며 저수지 환경정화에 나섰다.

‘쓰담쓰담’ 캠페인은 ‘쓰레기 담기’의 줄임말로, 저수지 둘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공사의 대표 ESG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 캠페인은 2023년부터 매년 진행돼 저수지 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환경보호 참여를 이끌고 있다.

김건경 지사장은 “광주호는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지역 관광명소 역할을 하

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광주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정승균 기자

이 기사는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www.kjdaily.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kjdaily.com/1759136881664799008>

프린트 시간 : 2025년 10월 15일 10:15:23